

이노버시티 평가

2018년부터 [중앙일보](#)가 실시하는 '이노버시티' 평가는 혁신(Innovation)과 대학(University)을 합친 단어로,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.

중앙일보 대학평가 대상 대학 중 최근 4년(2013~2016년) 발간한 SCI급(과학기술인용색인)논문 수 400편 이상, 총 발명 수 200건 이상인 대학 48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. (2018년 기준)

평가 지표

1. 논문 관련 지표 4개(세계 피인용 상위 1% 논문(HCP) 비율, 상위 10% 논문 비율, 분야별 논문 영향력 지수(CNCI), 분야별 상위(25%)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비율)
2. 발명 및 특허 관련 지표 4개(전체 발명 수, 논문에 1회 이상 인용된 발명 비율, 발명당 피인용, 특허 중 주요 4개국(미국·중국·유럽·일본)에 출원된 비율)
3. 협업(Collaboration) 관련 지표 2개(기업과의 공동 연구 비율, 해외 학자와의 공동 연구 비율)

한양대

- 2018년 : 종합 6위 (579점)^[1]
 - 전체 발명 건수 3014건으로 48개 평가대상 대학 중 4위
 - 세계에서 피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% 논문(HCP) 비율이 0.79%로 9위

1. [↑](#) <뉴스H> 2018.10.31 [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'혁신대학 평가', 한양대 6위](#)